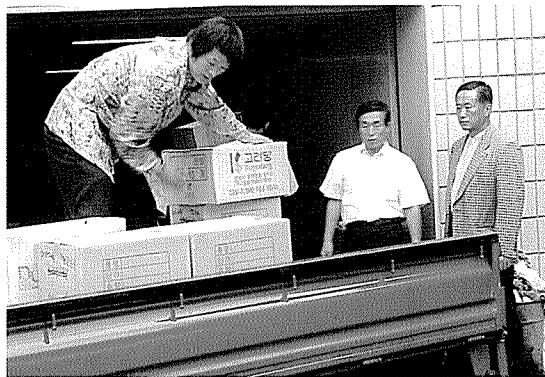


## 대한제과협회 수재의연금 전달 지회 지부 및 연관업체도 참여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지난달 12일 수재의연금 550만원과 100여 만원 상당의 빵을 모아 조선일보 등 관계기관에 기탁했다.

경제난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실상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수재민들이 속출하자 대한제과협회는 전국의 78개 지회와 지부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제과업계



모두가 동참하자는 뜻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와 60여개의 제과학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업계 사상 보기 드문 의연금과 성품을 모아 기탁함으로써 관련기관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8월 10일부터 대한제과협회가 모금 활동에 들어간 후 18일까지 8일동안 협회 자체로 모금한 의연금과 성품 외에 업체와 학원 등에서 솔선하여 직접 기탁한 성금 322만 7,000원을 비롯, 빵류 11만 5,100개 등 시가 5,656만원 상당을 기탁해 업계의 단합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수재의연금 모금을 위하여 대한제과협회 조승환 고문이 100만원을 협회에 기탁하였으며 임직원들이 6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을 모으는 등 애린사업에 혼연일체의 흐뭇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한제과협회 및 프랜차이즈업체 그리고 제과학원에서 기탁한 성금·성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성금 부문

#### ● 중앙회

△권상범 회장 50만원 △조승환 고문 100만원 △조성민 부회장 30만원 △방성열 부회장 30만원 △용성복 부회장 10만원 △중앙회 90

만원 △직원 일동 20만원

#### ● 광역시 및 중앙회 이사진

△인천 강희종 지회장 10만원 △대구 정춘원 지회장 10만원 △대전 유주경 지회장 10만원 △경기 이덕주 도지회장 10만원 △제주 이창화 도지회장 10만원

#### ● 서울 11개 지회

△중부지회(지회장 김태식) 20만원 △성동지회(지회장 신동균) 20만원 △강남·서초지회(지회장 김영모) 20만원 △동부지회(지회장 조병천) 20만원 △서부지회(지회장 장량기) 20만원 △강동·송파지회(지회장 노영대) 20만원 △성북지회(지회장 최부근) 10만원 △동작지회(지회장 변장섭) 10만원 △마포지회(지회장 장공희) 10만원 △관악지회(지회장 김종남) 10만원 △남부지회(지회장 이경섭) 10만원

#### ● 제과학원

△인천제과기술학원 유성현 원장 20만원 △마산제과기술학원 박미숙 원장 20만원 △부산 뿌리양떼제과기술학원 전정식 원장 10만원

### ■ 의연품 부문

△크라운베이커리 빵 1,000개 △고려당 빵 520개 △뉴욕제과 빵 500개

## 베이커리업계 수재민 지원 앞장 업체·학원·개인 등 온정 잇따라

프랜차이즈 및 양산업체, 학원, 제과점, 모임에 이르기까지 베이커리 업계가 수재민 지원에 앞장서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대전 성심당(대표 임영진)이 성금 100만원을 대전 MBC에, 수원 강동베이커리(대표 장명환)가 빵 4,500봉을 재해대책본부에, 부산 드래곤베이커리(대표 용성복)가 성금 20만원을 부산일보에 기탁하는가 하면 과기회가 성금 100만원을 중앙일보사에 기탁했다.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공동으로 5,000만원 상당의 빵 10만봉을 SBS에, 삼립식품이 빵 2만봉을 대한적십자사에, 크라운베이커리와 고려당이 1,000만원 상당의 빵과 카스텔라 500개를 각각 KBS에, 신라명과가 빵 1만봉을 중앙일보사에 기탁했다.

한편 제과학원의 온정도 이어져 전국 제과기술학원협의회(회장 김규호)가 10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감상업체과기기술학원(원장 김상엽)이 빵 2,000봉을 수락초등학교 수재민 대피소에, 대한제과기술학원(원장 이홍열)이 빵 2,200봉을 재해대책본부에, 인천·부천제과기술학원(원장 유성현)이 빵 1,400봉을 강화군청에, 대구 동경제과기술학원(원장 김기원)이 성금 32만 7,000원을 대구 KBS에 기탁했다.

## 지회 산하 과우회, 온정의 손길 중부·성금, 은평-빵 전달해

회원친목과 인화를 다져오고 있는 지회산하 과우회도 수재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지회의 중부과우회(회장 최현태)는 지난 8월 20일 성금 50만원을 수해를 당한 의정부지역 제과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정부 지부에 전달했다.

또 은평지회의 은평과우회(회장 박성원)도 60만원 상당의 빵 1,200개를 MBC에 기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쳐 제과인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 협회소식

## 광주지회, 사무실 현판식 가져



광주지회(지회장 최준휴)는 지난 7월 18일 권상범 회장 및 최준휴 지회장 외 각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역시 지회 및 전남 도지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의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회원 및 내빈 방문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주소: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37-2>

## 각 지회(부) 수재민에 온정

광주·성북·노원·남부·인천·남양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광주, 성북, 노원, 남부, 인천, 남양주 등 각지회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성금과 빵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회(지회장 최준휴)는 지난 8월 14일 성금 40만원을 광주 KBS에, 성북지회(지회장 최부근)는 지난 8월 빵 2,000봉을 석관동 수재민 대피소에 전달했다.

노원지회(지회장 김광식)도 빵 1,500봉을 노원구청 수재민 대피소에, 남부지회(지회장 이경섭) 임원들이 성금 7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기탁했다.

이밖에 인천지회(지회장 강희중)는 빵 1,500개를 강화군청에, 남양주 지부(지부장 김도영)도 지난 8월 16일 110만원 상당의 빵 2,183개를 남양주 시청에 기탁하는 등 각 지회 지부의 온정이 줄을 이었다.

## 러시아 제빵업체 일행 협회 방문

권상범 회장과 양국 교류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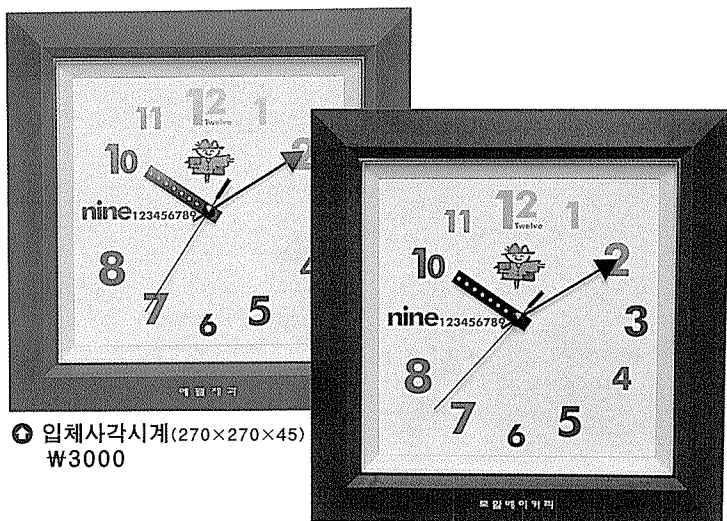
지난 7월 27일 러시아 제빵업체 일행이 대한제과협회를 방문했다.

이날 권상범 회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내한한 양산제빵업체 블라드클레브사의 리삭회장과 카민스키 기술담당이사를 만나 양국의 제과업계 현황과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 스위트하트

# “당신의 사업에 신바람을 일으킬 판촉시계”

- 상품 주문시 상호를 인쇄하여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견본 필요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벽시계1, 탁상시계1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입체사각시계 (270×270×45) ₩3000



㉡ 원반야광알람탁상시계 (140×140×45) ₩3000

**Sweet Heart®**  
HAVE A GOOD TIME

**스위트하트** 시계특판사업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잠전3동 610-6  
TEL (032)554-0367~8 FAX (032)554-0369  
능 협 130016-52-132471 (매주/금요일)

정정을 타하는 스위트하트입니다.  
진심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